

예 배	일 시	장 소
주일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예배당
청년 소 모듬	주일 오후 3시 30분	교육관
한민 말씀방	매일	카카오톡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넉넉하게 채워주신 하나님(느9:21)”



주일 예배 봉사위원

	09. 10	09. 17	09. 24
대 표 기 도	황희순 집사	최종열 성도	이상호 목사
성 경 봉 독	황희순 집사	최종열 성도	김종규 형제

교회소식

9월 축복인사 - 감사하는 성도님은 아름다우세요(성도 간에)

1.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성경 찾기 - 예배시간에 성경, 찬송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3. 합심기도 - 설교 후 합심기도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통성기도가 어려운 분은 찬양팀과 함께 함차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4. 목회자 모임 - 7일(목) 함부르크 소망교회(노환영 목사 시무)에서 모입니다.
5. 고국 방문 - 장래황 형제(4일) 류현석 형제(9일)
6. 나눔의 시간 - 이상호 목사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교우동정

생일	김복자 권사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십 일 조	
감사헌금	
합계(Euro)	



담임목사 이 상 호(Sang Ho Rhee)
예배반주 조 영 재 형제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온라인 헌금 안내

예금주 : HanMin Gemeinde
IBAN : DE26 2905 0101 0012 0638 48
BIC : SBRED 22XXX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홈페이지 :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찬 양 Gemeindelied	-----	Liebevoll 찬양팀
*송 영 Chor	-----	반주자
*기 원 Altargebet	-----	이상호 목사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Gemeindelied	487장	다같이
기 도 Gebet	-----	정용현 안수집사
성경봉독 Predigttext	행 27 : 21 - 26(신p235) (Apostelgeschichte27장)	정용현 안수집사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가족환영	이상호 목사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	이상호 목사
설 교 Predigt	고난에 임하는 자세	이상호 목사
성찬예식 Abendmahl	보혈을 지나, 마26:26~30	담임목사
* 파송찬양 Abschlusslied	선한 능력으로	다같이
* 축 도 Segnungsgebet	-----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	반주자

* 표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헌금은 예배 전 입구에서 봉헌해 주세요.

†기도제목

1. 다른 사람의 고통을 공감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힘을 주소서
2. 한민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학업과 생업에 기름 부어 주소서
3.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과 경제 안정, 인권회복을 위해서
4. 김선택, 장보경(형가리)선교사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소서

대요리 문답

문 70 : 칭의는 무엇입니까?

답 칭의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 목전에서 그들을 의로운 자로 용납하시고 간주하십니다. 칭의는 그들 안에서 이루어진 어떤 것이나 그들이 행한 어떤 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전가하시고, 죄인들이 오직 믿음으로 받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충분한 속상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롬3:24~25, 고후5:19,21, 롬3:24~25, 딤후3:5, 엡1:6~7, 갈2:16, 빌3:9)

문 71 : 칭의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입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의롭다함을 받을 자들을 위하여 자기의 순종과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하고 참되고 충분하게 속상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요구하셨을 속상을 한 보증인에게서 받으시되, 자기의 독생자를 그 보증인으로 예비하시고, 자기의 의를 그들에게 전가시키셨습니다. 또 그들의 칭의를 위하여 그들에게 믿음 외에는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고,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인 까닭에 그들의 칭의는 그들에게 값없이 베푸신 은혜입니다(마20:28, 뱀전 1:1)

* 설교노트

소모임을 위한 질문

1.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내용을 나누세요.
2.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나누고, 함께 기도해요.